

한동대학교 제7대 대학평의위원회

2018학년도 1학기 제1차 정기회의

(제1회 회의록)

구 분	평의원
의원정수	11명
재적인원	11명
참석인원	10명

회의 일시 : 2018. 07. 03(화) 12:15 ~ 14:15

회의 장소 : 현동홀 비전회의실

성원

1. 참석자 (10명)
이건 의장, 윤상헌 부의장, 강성준 의원, 신성만 의원, 주병창 의원, 김명호 의원, 권상석 의원, 최유강 의원, 최임성 의원, 김광수 의원
2. 불참자 (1명)
나원상 의원
3. 안건 관련 참석자 : 정상모 대학원장, 지범하 기획처장
4. 회의록 작성 : 차효성 과장(전략기획팀)

회의 안건

- 상견례 진행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 및 토의

- 상견례 진행
 - ▷ 최임성 의원의 기도로 제7대 대학평의위원회 제1회 회의를 시작함
 - ▷ 장순홍 총장의 주제로 제7대 대학평의원과 오찬을 진행하며 담소를 나누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우리 대학의 위기에 대한 주제로 여러 의원들과 의견을 나눔
 - ▷ 우리 대학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명품 크리스찬 대학에 대한 의견을 함께하면서 우리대학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하고 공유함.
 -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보배”대학으로의 발전필요
 - ✓ ‘안일’(작심삼일)과 ‘허영’(샤넬)의 양극단이 존재하는 고등교육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독교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한동의 교육이념과 비전, 서사성 (story-telling)이 있는 슬로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채플의 내실화가 요청됨
 - ✓ 질문을 많이 하는 교육 강화 :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대학 육성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대학이 지향해야할 방향
 - ✓ 플립드러닝 : 한주에 수업이 2회이면 1회는 학생이 가상강의 등을 통해 미리 공부를 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시간에는 토론 위주의 진행이 필요하고 교수는 가급적 이야기하지 않고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 필요.(예시 아리조나 주립대, 미네르바 대학 등)
 - ✓ 토론을 많이 하는 대학으로 교육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의장 및 부의장 호선 : 이건 의원이 의장으로, 윤상헌 의원이 부의장으로 호선됨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정상모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함

▷ 아래와 같이 관련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후 윤상헌 부의장이 추가 질문과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상정내용으로 의결함

- ✓ 최유강 의원이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등으로 우리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객관적인 교육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동문들을 대표하여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림. 이번 대학원 정원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에 찬성을 전제로, 그간 우리 대학 내에서 리더십간에 논의된 맥락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우리 대학이 학부중심대학을 지향하던 방향에서 연구중심대학으로 방향이 바뀐 것인지, 바뀌었다면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이 있으며 그에 따른 정원 조정안인지에 대해 질문함.
- ✓ 한동이 처한 현실에서는 학부교육의 뒷받침을 위해서는 대학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로 대학원의 역량강화가 진행되고 있고 대학원의 기능을 보완하여 기존에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면서도 학부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임을 정상모 대학원장이 설명하면서 대학원 까지도 같이 발전하는 것이 대학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나눔.
- ✓ 신성만 의원이 실제 심리학 박사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석사과정 학생의 연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부학생의 연구결과물 도출에도 시너지효과가 생기고 있음을 설명함. 박사과정을 도입하면 학부학생들 교육을 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순화하여 생각하기보다 학부학생들 연구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도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눔
- ✓ 강성준 의원이 이전 대학원장을 담당하면서 진행된 내용임을 설명하면서 당시에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눴고 일단 박사과정이 10명으로 제한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학부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대신 대학원 교육에 융통성을 주자는 정도로 도입된 배경을 설명함. 박사과정은 10명으로 정원이 제한이 되어 있고 정원을 늘리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임을 안내함.
- ✓ 교육대학원의 정원 조정 등 관련 질문에 교육대학원은 실질적으로 학생모집의 현실을 반영된 것 등 관련 내용을 정상모 대학원장이 설명함. 학교의 큰 방향성을 흔들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수요공급을 고려한 상황을 안내함
- ✓ 김명호 의원이 정원조정으로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편제정원 완성시점까지 유지해야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행정적인 재제를 받게 됨을 설명함. 현재 대학의 교원확보율이 100%를 유지해야하는 것을 공유함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 전략기획팀 차효성 과장(평의위원회 간사)이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취지와 배경,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함.

- ✓ 최유강 의원이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오픈하여 듣기 위한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개정에 찬성함을 설명함.
- ✓ 강성준 의원이 규정개정 내용 중 정기회의가 매 학기 6주차와 12주차에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경우 의원들이 해당 주간에 회의 참석 여건이 어려울 수가 있고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 ✓ 이에 최유강 의원이 사립학교법에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에 참여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항이 있음을 규정내용을 읽어 전체 의원이 확인하고, 차효성 전략기획팀 과장이 정

